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정엽*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Child-friendly city on the Perspective of Urban Geography*

Jungyeop Shin*

요약 : 국제기구와 정부차원에서 주도된 아동친화도시는 최근 활성화되면서 우리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동친화 도시는 아동이 주체로서 인정받으면서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받으며 사는 이상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대중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주로 제도, 정책, 홍보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도시지리학 관점에서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재고찰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는 도시연구, 도시공간구조, 장소감과 장소애착, 아동의 지리학(children's geographies)의 주제와 연계되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적 환경, 장소애착,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 도시지리학, 아동의 지리학

Abstract : As an emerging concept back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 bodies, child-friendly city (CFC) is currently changing our urban characters. CFC is designed to be an ideal city for children by recognizing them as independent agents and providing them with required resources and supports for their development. Despite the concept's increasing popularity and importance, current discussions are largely limited to institutional, policy, and promotional affairs, lacking substantive research on CFC.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reviews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scussion related to CFC from an urban geographer's perspective, and develops an argument that CFC should become a association is made to insights from urban studies, urban spatial structure, sense of place and place attachment, and children's geographies and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Child-friendly city, Child-friendly environment, Place attachment, Child independent mobility, Urban geography, Children's geographies

I. 서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간다. 이러한 도시에서 아동도, 가족,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 보통 성인과 구분되는 아동은 청소년, 청

년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아동은 보통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성숙도, 성장 측면에서도 정의된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완전체가 아닌 아동은 위험과 어려움에 취약하며, 따라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공간적으로 고립,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과 비교하면, 아동은 도시에서 사회 참여, 공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간이용이 제한적이며, 주 활동 공간도 집, 학교, 놀이터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Churchman, 2003; Haikkola *et al.*, 2007).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도시의 많은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은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Churchman, 2003). 최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출산에 대한 관심과 대책만 중요시될 뿐, 정작 반드시 성장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소외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경제적 이슈와 경제 주체인 성인이 더 주목받지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다(Woolcock *et al.*, 2010).

다행히 최근 도시에서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 논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기구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잘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6년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해비타트 의제(Habitat Agenda)는 아동친화도시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설치된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중심으로, 유엔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도시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Derr *et al.*, 2013). 현재까지 전 세계 790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우리나라도 31개 도시가 인증받았다. 이외에도 국내외 많은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이러한 아동친화도시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Lynch(1977)를 중심으로 한 *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와, 1990년대 다시 부활된 *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가 있다(Chawla, 2002; Horelli, 2007; Derr *et al.*, 2013).

이처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요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해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 연구도 아동친화도시 정책, 규정(김은진·이빈파, 2013; 박금식, 2014; 이태수, 2016; 서영미, 2018), 평가지표 개발(홍승애·이재연, 2011) 등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 연구는 제도, 정책, 홍보 측면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아동친화도시의 실질적, 심층적인 내용 및 이론적 검토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지리학 분야의 아동친화 관련 주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고찰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도시지리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 정책 측면에서만 논의되던 아동친화도시의 논의가 보다 이론적으로 토대를 갖추고, 더불어 도시지리학 분야의 중요 주제로서 아동친화도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아동친화도시 논의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친화 도시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련 논의를 고찰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논의의 성립과 발전

1. 아동친화도시의 기원과 전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의 기원은 명시적으로 제도, 정책 측면에서 국제기구에서 수행된 일련의 선언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 선언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으로,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존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유엔은 1959년 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선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보건, 영양, 주거의 권리를 규정하였다(Skelton, 2007; Derr *et al.*, 2013). 이를 기반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은 아동의 사회, 경제, 문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이에 의거하여 많은

국가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처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선언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의 또 다른 토대는 도시연구를 통해 마련되었다. 유네스코는 아동이 사는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Kevin Lynch를 중심으로 1970년 헬싱키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Lynch, 1977; Derr et al., 2013). 그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실행 프로그램인 의제 21(Agenda 21)은 아동을 환경관리와 의사결정 참여과정의 주요 주체로 간주하였다. 이후 1996년 유엔 인간정주회의(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의 실행프로그램인 해비타트 의제(Habitat Agenda)에서 아동을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의 필수 자원으로 간주하였다(Elshater, 2018). 1996년 UN Habitat¹⁾와 유니세프가 공동개최한 이 회의는 아동친화도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유네스코는 1970년대에 진행된 *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켜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함께 발전시켰다. 이는 아동의 요구를 확인하고, 아동참여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세계적인 발전 토대가 마련되었다(Derr et al., 2013; Nikku and Pokhrel, 2013).

실무차원에서 유니세프는 2000년 9월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역의 Innocenti Research Center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규정 마련, 도시인증, 국가별, 도시별 교류, 홍보 등의 업무가 활성화되었다. 이 사무국에서는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여러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가 조직되었으며, 다양한 컨퍼런스, 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2.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시행 절차

아동친화도시의 이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승애·이재연(2011)은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규정하였으며, 박금식(2014)은 아동친화도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

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의견, 우선순위, 권리 등이 공공정책, 프로그램, 결정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러한 정의들의 검토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즉,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이 중심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도시의 필요한 서비스와 기능을 잘 제공받으며,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이 사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유니세프는 다음 7가지로 답변하고 있다. 첫째, 아동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주체이다. 둘째, 아동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이며, 성장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제공받아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정책(예, 교육, 복지)에 영향을 받는다(적절한 아동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넷째, 아동의 의사, 견해는 국가, 도시의 정치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가족구조 변화, 세계화,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는 종종 아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아동은 빈곤, 부실한 보건상태, 영양실조, 환경오염 등에 매우 취약하다. 일곱째, 아동의 초기 경험은 이후 및 성인이 되었을 때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과정은 중요하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러한 필요성에 토대로, 유엔 아동친화도시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체적으로 조성, 발전시키기 위한 원리, 목표, 전략 등을 수립하였다. 우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 9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 차별받지 않음, (2) 아동을 위한 최대의 이익, (3) 삶의 본원적 권리 보장, (4) 아동의견의 존중, (5) 공정과 포용, (6) 책임과 투명성, (7) 아동의 공공참여, (8) 효율성과 대응, (9) 적응과 지속성이다(UNICEF, 2018; 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한편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5가지 목표와 7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5가지

목표로 (1) 모든 아동은 커뮤니티, 도시정부에 인정, 존중받아야 하고, (2) 모든 아동의 의견, 요구는 청취되고, 법률, 정책, 예산, 의사결정 등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3) 모든 아동은 보건, 교육 등의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5) 생활, 놀이,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 7가지인데, (1)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2) 지지 및 인식 증가, (3) 아동친화 법률 및 정책, (4) 도시 차원의 전략 계획, (5) 예산 할당, (6) 아동 참여, (7) 조정 및 파트너십이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렇게 유니세프가 마련한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토대로, 개별 국가의 도시들은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아동친화 커뮤니티 평가 툴(6개 영역, 84개 지표)과 정부 행정조직, 예산, 지원체제 등을 측정하는 아동친화 도시정부 평가 툴(68개 지표)을 제시하고 있다(UNICEF, 2018). 이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도시가 아동에게 적합한 도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의 실제 생활여건, 요구사항은 대륙, 국가, 도시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다양한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일반적인 지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Chatterjee, 2005; Villanueva *et al.*, 201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 신청, 보고서제출, 심사, 인증이라는 4단계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시는 인증 후 4년간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3. 아동친화도시 발전의 주요 특성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3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초기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논의는 국제기구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해비타트 의제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관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추상적인 수준의 아동친화도시

를 구체적인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별, 도시별 아동친화도시 구현이 가능해졌다. 국가별로 아동친화도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기존 도시들이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 전략,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19개국 79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고, 현재 인증을 추진 중인 도시는 더 많다. 아동친화도시 활동은 사무국이 위치한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우리나라는 201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총 31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고,²⁾ 61개 도시가 추진 중이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둘째,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핵심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전에도 아동과 도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동친화도시가 일반 도시와 다른 점은 그 주 대상이다. 일반 도시는 성, 연령,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는 18세미만의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다. 도시는 그 대상에 따라 도시계획, 도시관리의 목표, 관점, 수행전략, 세부사업이 달라진다. 아동친화도시에는 아동이 주요 주체로 아동이 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아동의 도시계획 참여는 중요하며, 이는 아동을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한다. 아동은 도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환경과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 변화시킨다(Skelton, 2007). 셋째, 아동친화도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대도시화와 더불어, 도시의 범죄,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아동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동이 다양한 경험,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친화도시의 목표가 제시한 것처럼, 아동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도시와는 다른 아동친화도시의 차별화라 할 수 있다.

III.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연구 경향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3가지 주제, 즉 아동의 복지와 참여, 아동친화환경, 독립적인 이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복지와 참여

아동친화도시 논의의 초기 관심은 아동 성장과정에 필요한 복지 제공에 있었다. 성장하는 아동에게는 깨끗한 환경과 물, 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Woolcock *et al.*, 2010).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은 주체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참여로 바뀌었다. 1989년 선포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신장에 대한 전환점이었으며, 유니세프는 기본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 참여와 관련하여 12가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였다(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복지, 참여와 관련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에는 관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주로 보건, 영양, 교육, 보호 등에, 선진국의 경우 주로 도시계획, 아동참여, 아동친화환경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Nikku and Pokhrel, 2013).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계획에 아동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아동의 참여 연구는 1970년대에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였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약화되었으며, 1990년대 다시 부활하였다. 도시계획에 대한 아동참여의 주요 연구로는 Chawla (1994), Hart(1997), Horelli(1997) 등이 있다. 도시계획에서 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을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신 사회적 접근의 공헌도 크다(Horelli, 1997). 또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성 주체로 간주한다(Malone, 2013). Putnam(2000)은 공공재로서 사회자본의 형성,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 네트워크로서 개인의 커뮤니티 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Morrow(1999)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아동이 중요시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아동에 대한 일부 관심도 학교, 가족으로 한정되었으며, 대신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활동(예, 친구집단교류, 교외활동)은 주목받지

못했다. 아동은 사회자본의 주체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Malone, 2013).

2. 아동친화환경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논의로 아동친화환경(child friendly environment)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친화환경은 아동에게 친숙하며, 아동이 적극적으로 즐기고 구성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장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가며, 동시에 환경, 장소를 만들어간다. 이를 통해 환경, 장소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다른 의미로 변화할 수 있다.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장소에서의 감성과 자기조절, 애착(Korpela and Hartig, 1996; Korpela *et al.*, 2002), 다양한 장소에 대한 아동의 선호(Liberg, 1994; Clark and Uzzell, 2002)의 연구 등이 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장은 매우 달라지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증진, 인지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친화환경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되며, 아동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Moore, 1990; Broberg *et al.*, 2013).

Horelli(2007)는 아동친화환경을 정의하는 10개 측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거, 기본 서비스, 참여, 안전, 가족(또는 또래집단, 커뮤니티), 도시의 질, 자원의 제공과 분포, 생태, 소속감과 연속성, 좋은 거버넌스이다(Broberg *et al.*, 2013에서 재인용). 그런데 아동은 매우 다양한 도시환경에 살기 때문에, 이 10개 측면이 모두 적용되기 어려우며,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아동은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Horelli, 2007).

그런데 이러한 아동친화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체적인 이론이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들이 단편적이며 근거리 환경에만 주목하였을 뿐, 거시적 차원에서 아동과 환경을 둘러싼 사회, 정치, 역사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친화환경 연구는 지리학, 심리학, 환경학, 사회학 등의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Horelli, 2007). 한편, Kytta (2004)의 연구는 아동친화환경 유형화를 통해 후속연구에 기여를 하였다. 즉, Kytta(2004)는 아동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자원과, 이에 대한 아동의 접근(또는

이용)이라는 2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친화환경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환경에는 실제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 자원을 아동이 얼마나 접근, 이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은 또 다른 지표이며, 이는 독립적인 이동성으로 간주된다. Kyttä(2004)는 이 두 지표(환경적 자원의 다양성, 독립적인 이동성)를 중심으로 아동의 친화환경을 4가지로 유형화(Wasteland, Cell, Glassland, Bullerby) 하였고, 유형별로 특성과 한계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

현대 도시의 아동은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 아동이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함을 의미하는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동의 과잉보호와 독립적인 이동성 감소는 교통사고, 범죄, 유괴 등에 대한 부모의 불안과 이에 따른 아동보호와 관련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 감소 경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7-12세 아동 71%가 부모가 동반하여 등교하며(Prezza *et al.*, 2001), 영국 7-8세 아동의 단독 등교 비율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71년 80%에서, 1990년에는 9%, 2010년 6%). 유사한 경향은 미국, 호주 등에서도 나타난다(Kytta, 2004; Foster *et al.*, 2013).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은 성별, 연령별,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에 비해 이동성이 제한적이며, 공간 이용시간이 더 짧고, 어른의 감독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러한 성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최근 연구(O'Brien *et al.*, 2000)도 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이동의 제약이 많지만, 성장하면서 이동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Prezza *et al.*, 2001).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O'Brien *et al.*(2000)은 영국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은 기존 대도시보다 교외지역의 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 개인의 측면이다. 아동의 연령, 성, 출생순서, 발달단계(또는 성숙도), 건강상태, 의

지, 능력 등에 따라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가족 측면에 해당된다. 이 측면에서 부모(특히 엄마)의 사고방식,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근린과의 관계,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독립적인 이동성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지역(환경) 측면이다. 아동이 사는 지역의 밀도와 주거구성, 지역의 낙후정도, 아동전용 공간(예, 놀이터)의 제공여부 및 배치, 거리와 교통상황, 집, 학교, 관련 시설의 위치와 거리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이동성이 달라진다(Prezza *et al.*, 2001; Churchman, 2003).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건강해지고, 인지능력이 발달하며, 공간인식이 증진된다. 또한 아동의 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Joshi *et al.*, 1999; O'Brien *et al.*, 2000; Foster *et al.*, 2013).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을 높이는 노력은 아동 개인, 가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아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 부모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동의 이동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Foster *et al.*, 2013).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아동은 도시의 매우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경험,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Haikkola *et al.*, 2007).

IV. 도시지리학 관점의 아동친화도시 연구

1. 도시연구와 아동친화도시

도시연구와 관련하여 아동은 중요한 주제이며 오랜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여기서는 도시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연구 흐름과, 이후 도시연구와 도시계획 상에서 수행된 아동연구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의 아동 관련 도시연구는 아동을 도시화, 근대화 과정에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다루었으며, 주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심리적 측면, 발달,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는데, 이는 Ward(1978)의 연구, *Growing Up in Cities* 프로젝트(Lynch, 1977)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전통은 1980년대에 들어서 침체되었다가 1990년대 다시 부활하였다(Woolcock *et al.*, 2010).

그동안 도시지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는 성인을 주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은 핵심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도시의 아동에 대한 일부 연구도 아동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예, 거리, 놀이공간)에 대해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O'Brien *et al.*, 2000). 사실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아동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 아동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인은 아동이 연령에 따라 능력, 활동 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성인은 아동에게 어떤 환경 요소가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즉 아동에게 비춰진 환경과 자신이 보는 환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아동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말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특히 도시 관련 사안의 경우)(Spencer and Woolley, 2000; Churchman, 2003에서 재인용). 실제 도시계획에서, 성인에게 중요한 도시 요소가 아동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선호도 성인과는 다를 수 있다(Matthews and Limb, 1999).

한편 도시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은 공식적 공간과 비공식적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공간은 아동을 위해 성인이 계획, 조직화한 공간으로 학교, 공원, 위락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비공식적 공간은 원래 의도적으로 계획,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공간으로, 오솔길, 작은 숲, 방치된 빈 공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식적 공간보다 비공식적 공간이 아동의 자율적인 탐색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O'Brien *et al.*, 2000).

아동을 고려한 도시계획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성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 고령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많이 수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은 자칫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거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친화성을 고려한 주거형태(아동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가족을 위한 주택)는 1인 가구나 고령화 시대의 도시주거계획과는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 시 아동친화성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Woolcock *et al.*, 2010).

아동은 다양한 잠재성을 지니며,³⁾ 이러한 잠재성에 영향을 주는 도시 요소로 다음 12가지를 들 수 있다. 즉, (1) 아동의 안전, 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 및 교통상황,

(2) 아동이 사는 지역의 용도지구 체계와 제도, (3) 도시 중심지, 다양한 자원의 입지와 활용, (4) 사회, 문화서비스(예, 영화관, 스포츠센터)의 존재, (5)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활동의 적합성, (6) 다양한 장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용가능성, (7)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8) 아동이 이용할 서비스, 자원의 경제적 비용, (9) 공공환경에 대한 안전인식 수준, (10) 다양한 연령의 아동에 대한 어른의 태도(장소허가와 관련), (11)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시간에 대한 제약, (12) 다양한 연령의 아동에 필요한 환경 요소이다(Churchman, 2003).

2 도시공간구조와 아동친화도시

앞서 도시연구에서도 아동친화성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지만, 여기서는 도시지리학분야 중 구체적으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아동친화성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공간밀도와 형태, 도시근린, 도시 놀이공간, 교외지역과 도시재구조화에 대한 것이다.

첫째, 도시공간구조와 관련된 주제는 아동과 관련하여 도시공간밀도와 형태에 대한 것이다. 아동이 사는 도시는 점차 고밀도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 압축적인 도시구조는 더 활기차고, 접근성이 높은 반면, 스프롤된 도시 구조는 저밀도 근린을 형성하여 접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이때 고밀도의 도시환경은 아동이 성장, 활동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고층, 고밀도 도시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향이 많으며(특히, 서구권 도시) 아동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편인데, 아동에게 접근성이 불편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근린의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Tranter and Pawson, 2001; Villanueva *et al.*, 2016). 도시의 밀도와 크기는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과도 관련된다. 많은 연구를 통해, 농촌 또는 저밀도 환경의 아동은 도시, 고밀도 환경의 아동보다 독립적인 이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et al.*, 2000). 반대로 두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Matthews *et al.*, 2000).

둘째, 아동친화성의 측면에서 도시근린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린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영향을 주며, 성장과정에서 아동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근린은 아동에 필요한 주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환경,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

공해준다. 따라서 아동성장에 좋은 근린은 주택, 시설, 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잘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적인 측면에서 근린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린과 아동 발달에 대한 전통 연구는 근린의 소득, 직업, 가족구조, 주거안정성 등의 요인을 다루었으며, 또한 근린의 안전, 위험, 주민의 사회적 구성도 아동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Villanueva *et al.*, 2016).

세 번째는 도시공간구조에서 아동의 놀이공간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도시에서 아동에 대한 주된 관심은 주로 집, 학교에 있었지만, 이외에도 아동의 성장과정에서는 놀이공간, 특히 야외놀이공간도 필수적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신체능력이 향상되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능력을 체험하고, 단체 규칙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놀이공간의 활성화와 아동의 자율성 확대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수고를 덜어주며, 지역 차원에서도 건전하고 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도움이 된다(Tranter and Pawson, 2001; Pawlikowska-Piechotka, 2011). 이는 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도시 이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의 놀이공간은 (1) 친구와의 사회적 공간, (2) 놀이, 스포츠를 위한 공간, (3)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의 사적 공간, (4) 혼자만의 사색 공간, (5) 체험 공간(예, 자연)의 성격을 가진다(Mathews *et al.*, 1999). 아동을 위한 야외 놀이공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아동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깝고, 놀이공간에는 적당한 수의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놀이공간은 쉽게 접근가능하고 밖에서도 어른이 볼 수 있도록 고립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다른 활동공간과 연계되거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회와 시설들이 제공되고, 아동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 또한 교통, 범죄 등에 안전하며, 기후가 온화하고,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는 쾌적한 곳이 좋다(Churchman, 2003).

넷째, 교외지역과 도시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아동친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구조는 고밀도의 도시 중심지와 저밀도의 교외지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신정엽, 2012).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목표는 문제가 많은 사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문제가 많은 도시 중심지를 떠나 이상적인 교외지역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었다. 교외지역은 아동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며, 아동에게 가족과의 공간, 아동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며, 환경적 불이익도 적은 등 장점이 많다. 이러한 좋은 교외환경에서 친구와의 놀이, 등하교, 커뮤니티의 시설, 서비스의 이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Woolcock *et al.*, 2010; Malone, 2013; Villanueva *et al.*, 2016). 도시 주변부 지역에서도 아동친화성은 필요하다. 도시 주변부 지역은 보다 저밀도이고, 도시 인프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고밀도 도시 중심지보다 자연환경, 커뮤니티 등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 아동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이 아쉬울 수 있다(Jackson and McDonald, 2005). 한편 기존 도시공간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모하며, 필요에 따라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시 재구조화 상황에서도 아동친화성은 필요하다. 한 사례로 Srinaga *et al.*(2018)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 중심지의 역사 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아동친화 방식을 조명하였다. 또한 도시재건과정에서도 아동친화성 노력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관련 사례로 2003년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이란 Bam시의 재건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연구가 있다⁴⁾(Rismanchian and Rismanchian, 2007).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중심지, 교외지역 등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고밀도의 도심과 저밀도의 교외지역에서의 아동친화성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공간을 보다 아동친화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재개발, 재구조화의 과정에서 아동참여적, 친화적인 노력이 가능하다.

3. 아동친화성과 장소

아동친화적인 장소는 아동친화도시의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아동이 도시, 장소에 가지는 인식에 따라 아동의 장소감(sense of place)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 형성되며, 이는 아동친화적 장소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여기서는 장소감과 장소애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적 장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장소에 대한 초기 연구는 장소의 인식, 이용, 재현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어린 아동도 친숙한 장소에 대한 지식을 공간적으로 조직하며, 이러한 지식이 자신의 장소 재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art, 1979), 아동의 지역에 대한 재현에는 연령보다는 거주기간이 더 관련된다는 연구(Wapner *et al.*, 1981)가 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학습 효과는 간접

방법(예, 슬라이드, 비디오)보다는 아동의 직접체험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 연구(Cornell and Hay, 1984), 지역에 대한 아동의 경험과 그 지역정보의 양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Joshi *et al.*, 1999)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장소 간에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장소 연구는 본 연구의 아동의 장소 친화에 토대가 된다.⁵⁾ 특히 아동친화적 장소와 관련하여 장소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인간과 장소간의 감성적 관계를 규정하는 장소감은 상징적 공간의 측면을 가지기도 하며, 또한 일상적, 주관적 경험의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아동은 자기의 장소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장소를 떠날 때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장소애착을 느낀다. 또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장소에 대한 경험과 애착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Chatterjee, 2005; Hashemnezhad *et al.*, 2013).

장소감은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가능한데, 예를 들어 Relph(1976)는 장소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외부성(outsideness)과 내부성(insideness)의 7가지 정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Shamai(1991)도 장소감을 7단계로 세분화⁶⁾하였는데, (1) 장소감없음 단계, (2) 장소에 대한 지식 단계, (3) 장소의 소속감단계, (4) 장소애착 단계, (5) 장소의 목표와 일치단계, (6) 장소에 대한 관여 단계, (7) 장소에 대한 희생단계로 구분하였다.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장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므로 장소애착을 높이는 도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장소애착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성에 기여하며, 근린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잘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소감과 장소애착을 토대로 아동친화적인 장소가 발달한다. 사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가 있듯이, 아동에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장소는 아동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사고를 증진시켜주며, 아동의 독립성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의 탐색을 장려한다. 이러한 아동선호의 장소는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장소로,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아동이 선호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는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 아동은 집안, 내부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남자 아동의 경우는 외부, 공공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Abbott-Chapman and Robertson, 2009).

아동친화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즉 (1) 아동이 자신의 선호 장소를 소유하는 기회 제공, (2) 아동과 장소간의 상호작용 증진, (3) 장소경험을 통한 환경 학습, (4) 장소를 생성, 통제(위험으로부터 보호), (5) 아동의 사적인 경험과 비밀 유지, (6) 장소에서 아동 자신의 자유로운 표현이다(Broberg *et al.*, 2013에서 재인용). 또한 Doll(1996)의 친화성 발달의 6가지 기준⁷⁾을 토대로, 아동의 장소친화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아동은 (1) 장소를 잘 관리하고, (2) 아동과 장소 간에 폭넓은 활동과 관심을 공유하며, (3) 다양한 환경 자원을 통해 아동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한다. 또한 (4) 오랜 기간 이용한 장소는 아동이 소유하도록 하며, (5) 많은 가능성을 탐색,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특별한 장소를 창출하도록 하며, (6) 아동 활동이 장려되도록 한다(Chatterjee, 2005).

그리고 도시계획 상에서 아동친화적인 장소를 조성할 수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교통(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보장), 필요한 도시기능이 혼합 배치되도록 구성(예, 주거, 직장, 상점들이 혼재), 아동의 요구사항에 주목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Whitzman and Mizrahi, 2012). 한편, 아동친화 장소와 관련하여 제3의 장소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공적장소와 사적장소의 영역과는 다른 제3의 장소는 카페, 음식점, 상점 등 불규칙한 공공모임의 장소를 나타내며 비공식 활동을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3의 장소는 집, 학교, 놀이공간에서 제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의 장소감과 장소애착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Elshater, 2018).

4. 아동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적 의미

또한 아동친화도시는 상당부분 아동의 지리학(children's geographies)과 관련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아동친화도시의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로 아동의 지리학 연구와 지리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의 지리학 연구는 7가지 측면에서 아동이 성인과는 다를 것을 강조하는데, 즉, (1) 아동이 세상을 보는 방식, (2) 아동의 장소이용 방식, (3) 아동의 활동범위, (4) 환경에 대한 아동의 두려움 수준, (5) 아동의 장소감, (6) 아동의 환경적 의사결정, (7) 아동의 민주적 책임성이다(Matthews

and Limb, 1999).

아동의 지리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전통적인 접근, 즉 생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공존한다. 첫째, 생태적 접근(또는 심리적 접근)은 아동이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인지지도, 인지능력, 인지태도 등을 토대로 아동을 이해한다. 아동에 대한 환경인지, 공간성 측정, 지도학습 등은 이 접근의 연구이며, 아동의 공간인지, 지도능력은 심리적 측면도 존재하며, 또한 아동의 생물학적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사회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에서의 아동의 성장을 중시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을 규정하면서 사회 속에서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두 접근은 아동의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면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 사회적 접근(new social approach)은 아동의 유년시절을 사회적 구성물로,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Holloway, 2014).

신 사회적 접근의 아동 지리학은 주로 최근 논의인 막시즘, 페미니즘, 포스트구조주의 접근을 토대하고 있다(Holloway and Pimlitt-Wilson, 2014). 이 새로운 아동지리학 접근은 관련 연구 분야의 성과와 관련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페미니즘 접근의 아동 연구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어머니의 지리학(geography of mothering)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여성의 육아와 가사, 육아지리, 육아 문화의 공간 재생산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지리학 연구와 연계시키고 있다(Holloway, 2014). 또한 최근 아동지리학 연구의 활성화는 일부 신문화지리 연구의 발달과 관련된다. 차이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신문화지리연구의 발달로 집단 간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과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집단들은 불균등한 권력과 자율성을 가지며, 이때 지배 집단은 이데올로기와 통제를 독점하는 반면, 약소 집단은 주변부, 배제의 성격을 띤다. 이 두 상반되는 집단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는 서로 다른 도시경관에서 재현된다.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와 경관은 성인집단-아동집단 간, 부유층아동-저소득층아동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Matthews and Limb, 1999).

아동지리학의 새로운 경향과 관련하여 Holloway and Valentine(2000)은 3가지 주제의 아동 공간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 글로벌/로컬 차원의 유형화된 공간, (2) 아동의 정체성과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 공간, (3) 유년시

절에 대한 이해가 특정 장소의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Horton and Kraftl(2006)은 현대 사회과학에서 주목을 받는 8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지리학의 주요 연구 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상성(everydayness), 물질성(materiality), 실제(practice), 구현(embodiment), 발달(교육)(ongoingness), 영향(affect), 공간화(spacing), 초과(excess)이다.

아동친화도시 정책, 계획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 계획이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지는 교육과정 속에서 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지리교육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Wilks(2010)은 호주의 사례를 통해 시민성 교육 함양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계획과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⁸⁾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계획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의견의 반영은 중요하다.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아동참여 방식으로, 그동안 아동포럼, 아동의회 등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며, 아동의 표현력이 낮거나 열악한 상황의 아동의 의견을 제대로 밝히는 데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집중상담, 개별미팅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Cunningham *et al.*, 2003). 또한 아동연구의 수행방법론 측면에서, 아동은 단순한 수동적인 연구, 실험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참여관찰 방법을 비판하기도 한다(Gallacher and Gallagher, 2008). 최근에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은 기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시민성을 학습해야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설계, 계획, 정책 등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은 예리한 관찰자이며, 분석가로서, 기존 도시계획 수행방식에서는 잘 반영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필요는 아동과 성인이 꼭 일치하지 않으며, 아동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아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며,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Cunningham *et al.*, 2003).

그림 1은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 경향을 요약한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아동친화도시의 논의는 제도, 정책 측면에서 주도되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초기 연구들이 큰 공헌을 하였다. 이후에 아동친화도시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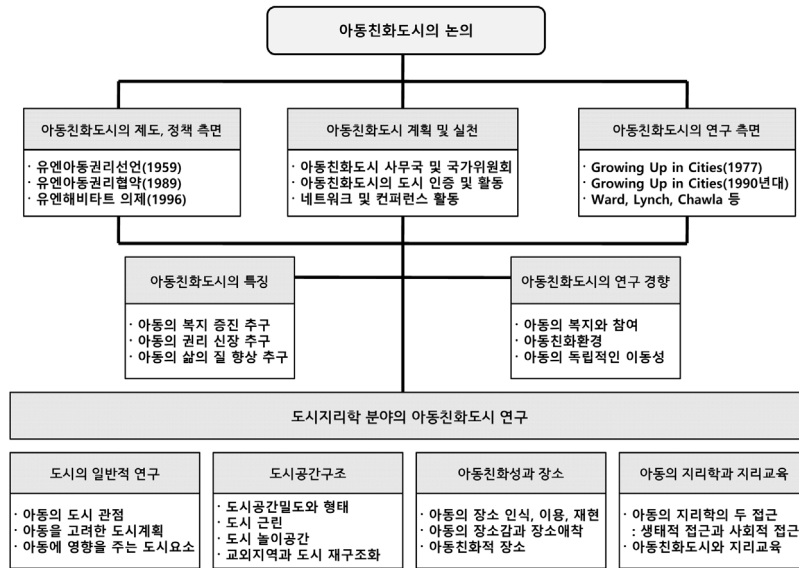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친화도시 논의의 전개와 연구 경향

련한 연구는 아동의 복지와 참여, 아동친화환경,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 연구가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단편적이며 아동친화성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지리학 분야에서는 도시연구, 도시공간구조, 아동친화적 장소, 아동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도시공간 속에서 아동의 주체성과 다양한 맥락적인 의미를 논의할 여지가 매우 많다. 따라서 향후에서도 도시지리학 분야에서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이 주체로서 성장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받는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특성,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요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도시지리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요

논의를 고찰하였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유엔인간정주회의 해비타트 의제 등으로 발전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사무국과 국가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안전과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복지와 참여, 아동친화환경, 독립적인 이동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실질적 삶에 대한 지원과 주체로서의 참여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또한 아동친화환경에 대한 필요성, 여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성은 아동, 부모, 사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도시가 아동친화적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여러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주제는 도시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도시입지, 도시계획, 도시요소와 관련한 도시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는 구체적인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하여 도시밀도, 근린, 놀이공간, 교외지

역의 주제와 밀접한 연계된다. 그리고 아동의 장소감과 장소애착은 아동친화적인 도시와 장소를 논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지리학과 교육측면은 아동친화도시의 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에 의해 발전해왔으며,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의 대중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제도적,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이론적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지리학 분야의 여러 주제와 논의는 아동친화도시 연구에 매우 필수이면서 중요한 개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 장소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지리학 분야의 주요 주제를 토대로 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아동에게 정말로 필요한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註

- 1) 유엔 해비타트(Habitat)는 인간정주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유엔기구로, 유엔인간정주위원회라고도 한다. 1978년 설립되어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1876년 뮌헨에서 첫 번째 해비타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인간거주선언 발표), 2차 회의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2차 해비타트가 개최되어 해비타트 의제를 선언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 2)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우리나라의 시, 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3) 아동의 잠재성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은 (1) 주변 환경을 인지, 적응, 향상시킬 수 있고, (2)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아동은 (3) 자신만의 프라이버시, 세계를 가질 수 있으며, (4) 다양한 환경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 아동은 도전과 위협을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Churchman, 2003).
- 4)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는 2003년 12월 발생한 지진으로 기존 도시 건물이 85%가 파괴되었으며, 도시복원을 위한 2주간의 워크숍에 아동을 참여시켰다(Rismanchian and Rismanchian, 2007).
- 5) 인간주의 지리학 접근의 Relph(1976)와 심리학 분야의 Canter(1977)는 장소의 구성요소로 3가지 유사성을 가지는데, 장소의 구성요소로 Relph는 물리적 특성, 관찰된 활동과 기능, 의미(심볼), Canter는 활동, 개념, 물리적 환경을 제시하였다(Chatterjee, 2005에서 재인용).
- 6) Shamai and Kellerman(1985)는 장소감을 4가지 척도, 즉 (1) 장소감없음 단계, (2) 장소에 대한 지식 단계, (3) 장소의 소속감 단계, (4) 장소애착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Shamai(1991)가 7가지 척도로 발전시켰다.
- 7) Doll(1996)에 의하면 친화성 발달을 위한 기준은 상호애정과 배려, 관심과 활동의 공유, 헌신, 충성, 자기개방과 상호이해, 수평상태이다.
- 8) 그동안 호주에서는 시민성 교육이 거의 부재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례를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Discovering Democracy, 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호주의 모든 주에서 시민성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Wilks, 2010).

참고문헌

- 김은진·이빈파, 2013, “아동친화도시, 성북구 Non-GMO 선언의 의미,” 의생명과학과 법, 10, 121-138.
- 박금식, 2014,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필요,” 부산여

- 성가족 Brief, 20, 1-8.
- 박세경, 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33, 62-72.
- 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2(2), 383-407.
- 신정엽, 2012, “개념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 내부 구조 모델의 이론적 재고찰,” 한국지리학회지, 1(2), 177-191.
- 이태수, 2016, “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와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 국제복지학, 6(2), 57-80.
- 홍승애·이재연, 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Abbott-Chapman, J. and Robertson, M., 2009, Adolescents' favorite places: Redefining the boundari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 *Space and Culture*, 12(4), 419-434.
- Broberg, A., Hytta, M., and Fagerholm, N., 2013, Child-friendly urban structures: Bullerby revis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5, 110-120.
- Canter, D., 1977, *The Psychology of Place*, London: Architectural Press.
- Chatterjee, S., 2005, Children's friendship with place: A conceptual inquiry,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5(1), 1-26.
- Chawla, L., 1994, Childhood's changing terrain: Incorporating childhood past and present into community evaluation, *Childhood*, 2, 221-233.
- Chawla, L., ed., 2002, *Growing Up in an Urbanizing World*, London: UNESCO Publishing.
- Churchman, A., 2003, Is there a place for children in the city? *Journal of Urban Design*, 8(2), 99-111.
- Clark, C. and Uzzell, D., 2002, The affordances of the home, neighborhood, town center for adolesc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 95-108.
- Cornell, E.H. and Hay, D.H., 1984, Children's acquisition of a route via different media, *Environment and Behavior*, 16, 627-641.
- Cunningham, C., Jones, M., and Dillon, R., 2003, Children and urban planning regional planning: Participation in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through story writing, *Children's Geographies*, 1(2), 201-221.
- Derr, V., Chawla, L., Mintzter, M., Cushing, D., and Van Vliet, W., 2013, A city for all citizens: Integrating children and youth from marginalized populations into city planning, *Buildings*, 3, 482-505.
- Doll, B., 1996, Children without friend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The School Psychology Review*, 25(2), 165-183.
- Elshater, A., 2018, What can the urban designer do for children? Normative principle of child-friendly communities for responsive third places, *Journal of Urban Design*, 23(3), 432-455.
- Foster, S., Villanueva, K., Wood, L., Christian, H., and Giles-Corti, B., 2013, The impact of parents' fear of strangers and perceptions of informal social control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Health and Place*, 26, 60-68.
- Gallacher, L.-A. and Gallagher, M., 2008, Methodological immaturity in childhood research? Thinking through 'participatory methods', *Childhood*, 15(4), 499-516.
- Haikkola, L., Pacilli, M., Horelli, L., and Prezza, M., 2007, Interpretations of urban child-friendliness: A comparative study of two neighborhoods in Helsinki and Rome,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7(4), 319-351.
- Hart, R., 1979, *Children's Experiences of Place*, New York: Irvington.
-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NICEF.
- Hashemnezhad, H., Heidari, A.A., and Hoseini, P., 2013, Sense of place and place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3(1), 5-12.
- Holloway, S.L., 2014, Children's geographies annual lecture 2013: Changing children's geographies, *Children's Geographies*, 12(4), 377-392.
- Holloway, S.L. and Pimlott-Wilson, H., 2014, 'Any advice is welcome isn't it?': Neoliberal parenting education, local mothering cultures and social class, *Environment*

- and *Planning A*, 46(1), 94-111.
- Holloway, S.L. and Valentine, G., 2000, Spatiality and the new social studies of childhood, *Sociology*, 34(4), 763-783.
- Horelli, L., 1997,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children'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Scandinavian Housing and Planning Research*, 14(3), 105-115.
- Horelli, L., 2007, Construct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child-friendlines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7(4), 267-292.
- Horton, J. and Kraftl, P., 2006, What else? some more ways of thinking and doing 'children's geographies', *Children's Geographies*, 4(1), 69-95.
- Jackson, J. and McDonald, C., 2005, "They have good intentions".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living in Melbourne's peri-urban area, *Urban Policy and Research*, 23(4), 477-495.
- Jones, O., 2000, Melting geography. Purity, disorder, childhood and space, in Holloway, S.L. and Valentine, G., eds., *Children's Geographies. Playing, Living, Learning*, London: Routledge, 29-47.
- Joshi, M., MacClean, M., and Carter, W., 1999, Children's journey to school: Spatial skills,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 125-139.
- Korpela, K., Kytta, M., and Hartig, T., 2002, Restorative experience,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lace prefer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 387-398.
- Korpela, K. and Hartig, T., 1996, Relative qualities of favorite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21-233.
- Kytta, M., 2004, The extent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ized affordances as criteria for child-friendly environ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179-198.
- Lieberg, M., 1994, Appropriating the city: Teenagers use of public place, in Neary, S.J., Symes, M.S., and Brown, F.E., eds., *The Urban Experience: A People-Environment Perspective*, London: E and FN Spon, 321-333.
- Lynch, K., 1977, *Growing Up in Cities*, Cambridge: MIT Press.
- Malone, K., 2013, "The future lies in our hands": Children as researchers and environmental change agents in designing a child-friendly neighborhood, *Local Environment*, 18(3), 372-395.
- Matthews, H., Limb, M., and Taylor, M., 1999, Young people'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society, *Geoforum*, 30, 135-144.
- Matthews, H., Taylor, M., Sherwood, K., Tucker, F., and Limb, M., 2000, Growing-up in the countryside: Children and the rural idyll, *Journal of Rural Studies*, 16, 141-153.
- Matthews, H. and Limb, M., 1999, Defining an agenda for the geography of children: Review and prospec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1), 61-90.
- Moore, R., 1990, *Childhood's Domain: Play and Place in Child Development*, Berkeley, CA: MIG Communication.
- Morrow, V., 1999, Conceptualising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critical view, *Sociological Review*, 47(4), 744-766.
- Nikku, B. and Pokhrel, R., 2013, Crafting child-friendly cities: Evidence from Biratnagar sub-metropolitan city, Eastern Nepal,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7, 135-150.
- O'Brien, M., Jones, D., and Sloan, D., 2000, Children's independent spatial mobility in the urban public realm, *Childhood*, 7(3), 257-277.
- Pawlikowska-Piechotka, A., 2011, Child-friendly environments and playgrounds in Warsaw, *Open House International*, 36(4), 98-110.
- Prezza, M., Stefania, P., Morabito, C., Cinzia, S., Alparone, F.R., and Guilian, M.V., 2001,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and urban factors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relationship to peer frequenta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6), 435-450.
- Punch, S., 2000, Children's strategies for creating playspaces: Negotiating independence in rural Bolivia, in Holloway, S.L. and Valentine, G., eds., *Children's Geographies*.

- Playing, Living, Learning*, London: Routledge, 48-62.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New York: Touchstone.
- Ramezani, S. and Said, I., 2013, Children's nomination of friendly place in an urban neighborhood in Shiraz, Iran, *Children's Geographies*, 11(1), 7-27.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ismanchian, O. and Rismanchian, A., 2007, Children participation in planning process: The case of child friendly city project in post-earthquake Bam, Iran, *Urban Design International*, 12, 143-154.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 Shamai, S. and Kellerman, A., 1985, Conceptual and experimental aspects of regional awareness: An Israeli case study,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76, 88-89.
- Skelton, T., 2007, Children, young people, UNICEF and participation, *Children's Geographies*, 5(1), 1-2, 165-181.
- Spencer, C. and Woolley, H., 2000, Children and the city: A summary of recent environmental psychology research,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6(3), 181-198.
- Srinaga, F., Katoppo, M., and Hidayat, J., 2018, Child- and elder-friendly urban public places in Fatahillah Square historical district, *IOP Conferenc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126 (<http://dx.doi.org/10.1088/1755-1315/126/1/012201>).
- Tranter, P. and Pawson, E., 2001, Children's access to local environments: A case study of Christchurch, New Zealand, *Local Environment*, 6, 27-48.
- UNICEF, 2018, *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Handbook*, UNICEF.
- Villanueva, K., Badland, H., Kvalsvig, A., O'Connor, M., Christian, H., Woolcock, G., Giles-Corti, B., and Goldfeld, S., 2016, Can the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make a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Building the research agenda to create evidence for place-based children's policy, *Academic Pediatrics*, 16(1), 10-19.
- Wapner, S., Kaplan, B., and Ciotton, R., 1981, Self-world relationships in critical environmental transitions: Children and beyond, in Liben, L., Patterson, A., and Newcombe, N., eds., *Spatial Representation and Behaviour across the Life Span: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251-282.
- Ward, C., 1978, The child in the city, *Society*, 15(4), 84-91.
- Whitzman, C. and Mizrachi, D., 2012, Creating child-friendly high-rise environments: Beyond wastelands and glasshouses, *Urban Policy and Research*, 30(3), 233-249.
- Wilks, J., 2010, Child-friendly cities: A place for active citizenship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9(1), 25-38.
- Woolcock, G., Gleeson, B., and Randolph, B., 2010, Urban research and child-friendly cities: A new Australian outline, *Children's Geographies*, 8(2), 177-192.
- 네이버지식백과 홈페이지, <https://terms.naver.com>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 UNICEF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 교신 : 신정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geoshin@snu.ac.kr)
- Correspondence : Jungyeop Shin,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 투 고 일: 2018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3일
투고확정일: 2018년 12월 6일

